

2040

제2편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제1장. 미래상 설정

제2장. 계획지표 설정



제1장 미래상 설정

① 미래상 설정

② 목표 및 전략

① 미래상 설정

1. 기본방향

- 도시 미래상은 2040년까지 인천광역시가 지향해야할 미래 모습과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기준이며, 목표 및 전략은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
-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미래비전을 선정하고, 선제적·선별적 핵심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미래상을 도출함
 -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공감하는 인천광역시의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천의 미래비전, 생활권별 미래비전과 핵심 전략을 도출함
 - 도시 진단 및 현안 과제,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나타난 인천시민의 생각, 인천광역시의 시정·정책방향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포럼(자문)을 통해 도시 미래비전 및 달성전략을 도출함
 - 상위 및 관련계획, 대내·외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국내·외 주요 도시 비전 및 전략, 시정정책 방향 등의 주요 핵심과제 및 정책방향 검토함
- 시민이 지향하는 미래비전과 선제적·선별적 핵심정책 방향 도출을 통해 도출된 미래상을 종합하여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을 설정함

[그림 2-1-1]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설정방향



시민계획단 의견을 듣고 선제적·선별적 핵심정책 방향 도출을 통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설정

2. 시민계획단

가. 시민계획단 운영

■ 개념

- 시민계획단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20년 후인 2040년 인천의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조직으로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기준 시민계획단의 의견은 그대로 수용하여 계획의 연속성 유지
- 「인천의 미래비전과 핵심이슈는 인천시민이 만든다」는 취지 아래 일반시민으로만 구성된 시민계획조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천의 미래비전, 생활권별 미래비전과 핵심전략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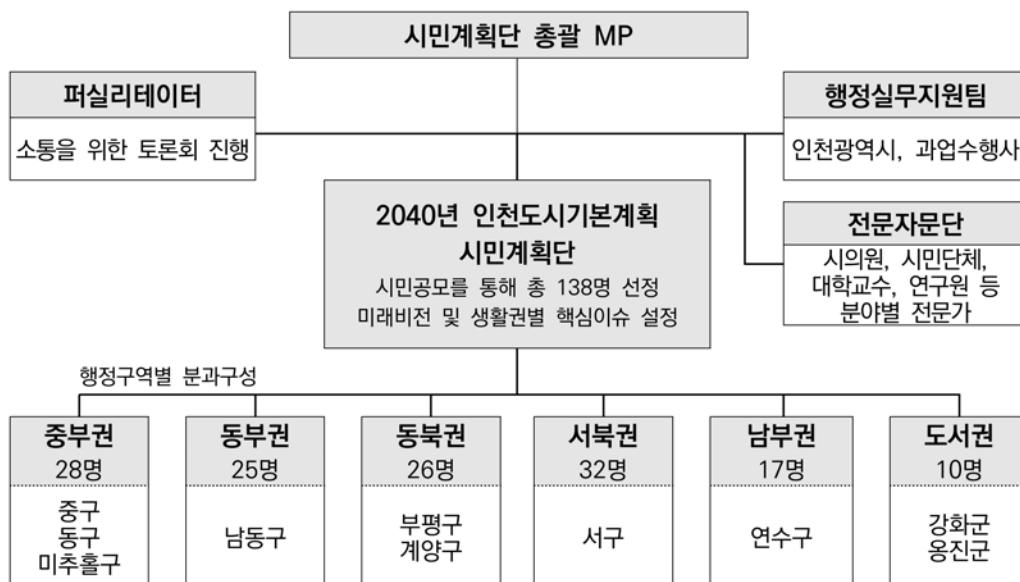
■ 운영 배경

- 계획과제와 미래상, 생활권별 이슈 도출 등 계획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 시민계획단 운영의 근거 : 도사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추진 목적

- 행정중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스스로 20년 후의 인천광역시 미래비전을 제시함
-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
- 토론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역량 강화와 상시 거버넌스 채널을 마련

■ 구성



■ 운영 프로그램

[표 2-1-1] 시민계획단 진행 경과

회 차	일 시	주 제
출범식	2019. 08. 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이해 • 인천의 변화와 미래방향
1 차 회의	2019. 08. 2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의 미래를 꿈꾸다 - 2040년 권역(생활권)별 보물자원 및 미래비전 - 2040년 인천광역시의 미래비전(1차)
2 차 회의	2019. 08. 3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별(인천광역시)의 핵심이슈를 심화하다 - 2040년 권역(생활권)별 장단점 - 7개 분야별 핵심전략 - 2040년 인천광역시의 미래비전(2차)
3 차 회의	2019. 10. 0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다 - 2040년 인천광역시 미래비전 - 2040년 인천광역시 분야별 핵심전략
시민제안서 전달식	2019. 10. 2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전달



나. 시민계획단 미래상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시민 138명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미래비전을 선정
- 시민계획단이 선정한 2040년 인천의 미래비전은,

“시민중심의 국제·문화·해양도시”

- 인천시민이 바라는 2040년 인천의 미래비전은 시민과 함께 도시정책 및 계획이 만들어 지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의 국제적인 문화 해양도시를 지향하고자 함
 - 국제도시는 세계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인천광역시 전체를 세계적인 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로 변화시켜 세계인의 교류의 장이 되고 한반도 평화협력과 통일시대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의미
 - 문화도시는 고유의 지역특성과 문화정체성을 보여주는 원도심과 개항장 등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활용하여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시민주도의 문화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세계적인 문화 다양성이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자는 의지
 - 해양도시는 강화도 갯벌 등 해양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바다와 차단되어 있는 해안선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시민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인천의 섬 하나하나를 모두 가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여 해양문화가 꽂힐 수 있는 도시를 지향



3. 시정정책방향 검토

가. 기본방향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이슈를 도출
- 국토의 미래상과 지역 내에서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한 미래상 전망
- 핵심과제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대내·외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국내·외 주요 도시 비전 및 전략, 시정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

Step 1. 상위 및 관련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통해 기본목표와 전략 도출

Step 2. 대내·외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 21세기를 향한 시대적 패러다임 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 요소도출

Step 3. 국내·외 주요 도시 비전 및 전략

- 국내·외 주요도시의 주요 비전 및 전략 검토를 통해 미래상과 이슈도출

Step 4. 시정정책방향

- 인천광역시의 핵심시책을 통해 정책방향 도출

Step 5. 핵심과제 및 정책방향 분석

[그림 2-1-2] 시정정책방향 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	대내·외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국내·외 주요 도시 비전 및 전략	시정정책방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 경제 • 산업기술 • 토지이용 • 기후환경 • 사회·가치 •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플랜(안) •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안) • The London Plan(2019~2041) • OneNYC 2050 • Plan Melbourne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핵심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비전 - 5대 시정목표 - 20대 핵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별 시민계획단 의견

상위 및 관련계획, 대내·외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국내·외 주요 도시비전 및 전략, 시정정책방향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키워드 선택



핵심과제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미래비전 설정

나. 시정정책방향 검토

■ Step 1. 상위 및 관련계획상 인천광역시 여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기본목표와 전략 도출

구 분	목표 및 추진전략
제5차 국토 종합계획 (2021~2040)	<p>[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p>[발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매력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2021~2040)	<p>[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수도권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주민 삶의 질)세계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수도권의 혁신성장 역량 제고 (평화경제)한반도 평화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 <p>[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과밀화 확산 관리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등 집중관리 수단의 실효성 제고 제조업 집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분산 추진 계획입지 유도 및 기준 개별입지 정비 등 난개발 해소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대기질·수질·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및 개선 지역별 특화벨트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결집 첨단교통·물류 인프라 지원을 통한 초연결성 확대 거점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특화발전 유도 수도권 접경지역 평화경제 벨트 형성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평화경제 선도를 위한 북부지역 역할 제고

구 분	목표 및 추진전략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 (2021~2040)	<p>[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이고 살기좋은 쾌적한 수도권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 상생·통합의 수도권 <p>[발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수도권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 •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 •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을 통한 수도권 생태 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 •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수준 향상 •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를 통한 광역거점 육성과 직주근접 실현 •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으로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으로 매력적인 수도권 조성 •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 방향 제시 및 상호연계 강화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지속적 운영으로 공동 현안 논의 및 협의 지속
제 5 차 국토 종합계획 (2021~20 40) 수정계획 수립중	<p>[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도시 •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일자리도시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관광도시 •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해양도시 <p>[발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 관리 및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 •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 • 국제 수준의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 •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2021~2040)	<p>[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확장 및 스마트화 등을 통해 초격차를 확보 •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 및 거점유통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 • 산업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으로 도약 • 로봇 소재부품 바이오 등 혁신형 첨단산업 유치 및 산학협력을 지원 • 기존 도심의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로 혁신역량 확대 도모

구 분	인천광역시 주요내용
	<p>[평화경제 벨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강화 옹진 및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이 평화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 발전 지원 <p>[과밀억제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입지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p>[성장관리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지역 공급물량은 권역내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배정 공장총량제로 관리중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도 산업단지와 함께 “공업지역 공급물량”으로 관리하여 계획입지 유도기능 강화 타법상의 주요 난개발방지 정책들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서 난개발 방지 및 해소 중심으로 운영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 (2021~2040)	<p>[주요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거점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압축적 토지이용체계 확립 GTX를 통한 광역거점 연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빠르고 원활한 통행체계 조성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통근시간 단축 단절·훼손된 녹지체계를 복원하여 수도권 강산벨트 구축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축을 연계한 생태네트워크 확립 수도권 여가관광루트 연계 구축으로 근거리 여가공간 제공 및 문화경쟁력 향상 에너지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 감소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글로벌 혁신허브로서 수도권 차원의 국제적 거점 및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 조성 ICT, 스마트벨트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생태계 구축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창업허브로서 산업·기술·문화를 융합한 차세대 산업 인프라 구축 ICT 기술혁신을 통한 도농통합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
<div style="border: 1px dotte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핵심 Key word 글로벌, 균형발전, 상생·통합, 신성장산업, 혁신, 스마트 </div>	

■ Step 2. 대내·외 도시 패러다임 변화

21 세기를 향한 시대적 패러다임 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 요소도출

구 분	주요 현황 및 예언변화
인구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외국인증가, 다문화가구 도심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감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소득·소비의 양극화 Post-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극복 기반 마련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정 저성장 추세와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산업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그린산업으로의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공간 조성과 국토관리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재생 등 산업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제조산업의 성장 한계 도달 기반시설의 노후화 심화 수소경제·스마트시티·드론·제로에너지 건축·자율주행차 교통기술 및 서비스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 - AI, 빅데이터 이용 증가 - 미래기술 기반의 통합교통 서비스 제공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개발·과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국토관리 도시개발에서 도시성장관리로의 정책 전환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종합적 도시발전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원도심의 자족기능 강화
기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미세먼지, 폭염, 유해화학물질 증가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 재해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증가 환경훼손과 환경오염 해양환경가치 증가와 친수공간의 재생관리 필요
사회·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삶의 질과 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 요구 시민들의 행정 참여욕구 확대 및 시민중심의 사회혁신 자치활동 증가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한 신뢰 형성과 기반 구축

핵심 Key word

인구감소, 양극화, 재생, 균형발전, 환경

■ Step 3. 국·내외 주요 도시 비전 및 전략

국내외 주요도시의 주요 비전 및 전략 검토를 통해 미래상과 이슈도출

구 분	주요 현황 및 예언변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2021~2040)	<p>[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p>[지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경쟁력 대전환시대 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 (2021~2040)	<p>[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多)가치 어우러지며 시민이 함께 그리는 스마트 부산!”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청년활력 미래 도시 탄소중립 건강 도시 <p>[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처계 정립과 생활권 계획 위상 확립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15분도시 실현 방안 수요 기반 생활SOC 확보로 생활권 특화 국토 불균형 대응과 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핵심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광역교통망, 신교통 수단으로 초광역 연결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정책 도시공간 정비로 新청년활력공간 확보 글로벌 금융중심지, 산학협력 혁신도시 탄소중립 전환기반 구축과 실천력 제고 생태친화형 녹색 치유공간 확보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안심 건강 도시

구 분	주요 현황 및 여건변화								
The London Plan (2019~2041)	<p>[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기회 보장 •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범죄 및 무질서 방지 • 의료 불균형 해소, 전략 실행 재원 확보 • 템스 강 이용 촉진 • 유럽 연합과의 의무 이행 • 기후 변화 대비, 국가 정책 및 국제 협약과 연계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od Growth)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포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p>[전략]</p> <table border="0"> <tr> <td>• 탄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조성</td> <td>•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집 제공</td> </tr> <tr> <td>•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td> <td>• 좋은 경제력 양성</td> </tr> <tr> <td>• 건강한 도시형성</td> <td>• 효율성 및 회복탄력성 증진</td> </tr> </table>	• 탄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조성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집 제공	•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 좋은 경제력 양성	• 건강한 도시형성	• 효율성 및 회복탄력성 증진		
• 탄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조성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집 제공								
•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 좋은 경제력 양성								
• 건강한 도시형성	• 효율성 및 회복탄력성 증진								
OneNYC 2050 (2019~2050)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의 장기 전략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처, 평등 달성,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강하고 공정한 도시 형성 <p>[목표]</p> <table border="0"> <tr> <td>• 활기찬 민주주의</td> <td>• 평등하고 우수한 교육</td> </tr> <tr> <td>• 포용적 경제</td> <td>• 살기 좋은 기후</td> </tr> <tr> <td>• 번성하는 지역사회</td> <td>• 효율적인 이동성</td> </tr> <tr> <td>• 건강한 삶</td> <td>• 기반시설 현대화</td> </tr> </table>	• 활기찬 민주주의	• 평등하고 우수한 교육	• 포용적 경제	• 살기 좋은 기후	• 번성하는 지역사회	• 효율적인 이동성	• 건강한 삶	• 기반시설 현대화
• 활기찬 민주주의	• 평등하고 우수한 교육								
• 포용적 경제	• 살기 좋은 기후								
• 번성하는 지역사회	• 효율적인 이동성								
• 건강한 삶	• 기반시설 현대화								
Plan Melbourne 2050 (2017~2050)	<p>[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멤버론 • 세계와 연결된 경쟁력 있는 도시 • Regional Victoria*의 중심 • 회복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 동네에서 살기 : 20분 거리 내 지역사회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도시 • 직장 및 서비스 인근 주택 공급 • 직장, 서비스 및 상품에 연결된 통합적 교통 시스템 • 편의성을 지닌 독특하고 살기 좋은 도시 • 포용적이고 활기찬 동네가 있는 도시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있는 Regional Victoria 								

핵심 Key word

지속가능한, 포용, 기후변화, 균형발전, 환경

■ Step 4. 시정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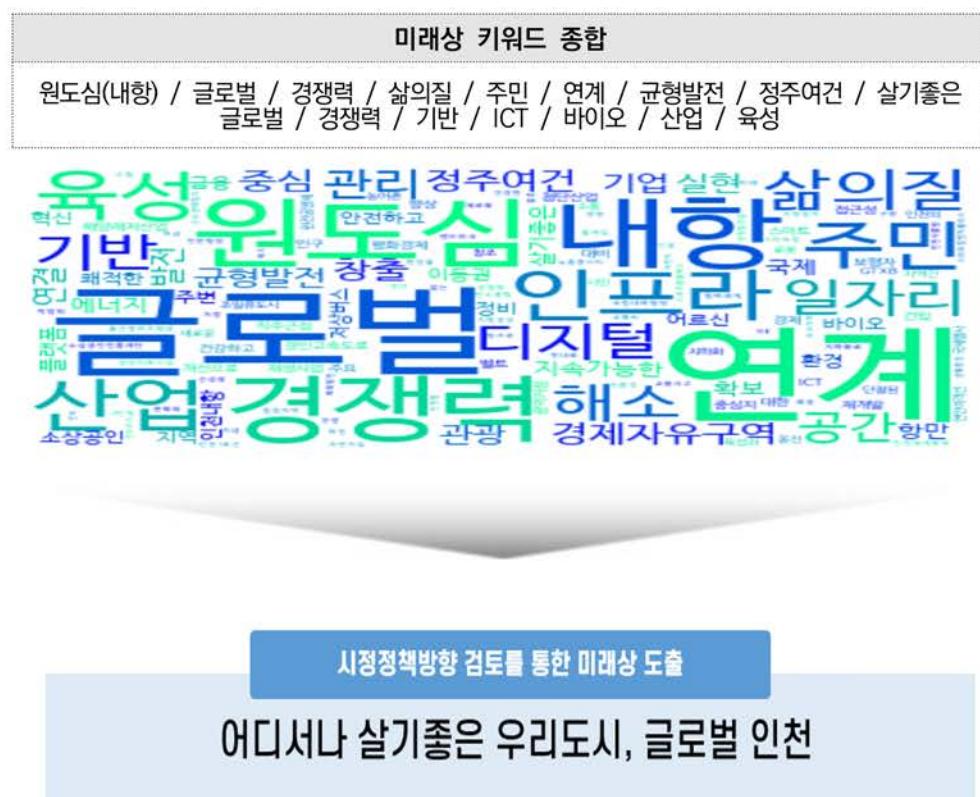
시정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정 목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4대 시정 방침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10대 정책	1.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 2.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	1.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2.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3.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1.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소통 · 공감도시 2.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교육 · 안전도시	1. 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 도시 2. 모든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핵심 Key word				
균형, 창조,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지역, 계층, 세대간 불균형 해소 ○ 변화와 창조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 ○ 진정성과 배려를 통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소통 시대 				

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상 도출

- 시정정책방향 검토를 위해 개방형 시각화(Visualization)로 표현 가능한 자연어 처리의 워드클라우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미래상 키워드를 도출함
 - 상위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서울 및 부산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과 런던, 뉴욕 그리고 맨버른의 비전과 전략을 워드클라우드 분석에 활용하였음
 - 인천광역시 민선 8기의 시책 또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에 활용하였음
 - 대표 미래상 키워드는 “원도심(내향) / 글로벌 / 경쟁력 / 삶의질 / 주민 / 연계 / 균형발전 / 정주여건 / 살기좋은 글로벌 / 경쟁력 / 기반 / ICT / 바이오 / 산업 / 육성” 으로 분석됨
 -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래상은

“어디나 살기 좋은 우리도시, 글로벌 인천”

[그림 2-1-3]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미래상 키워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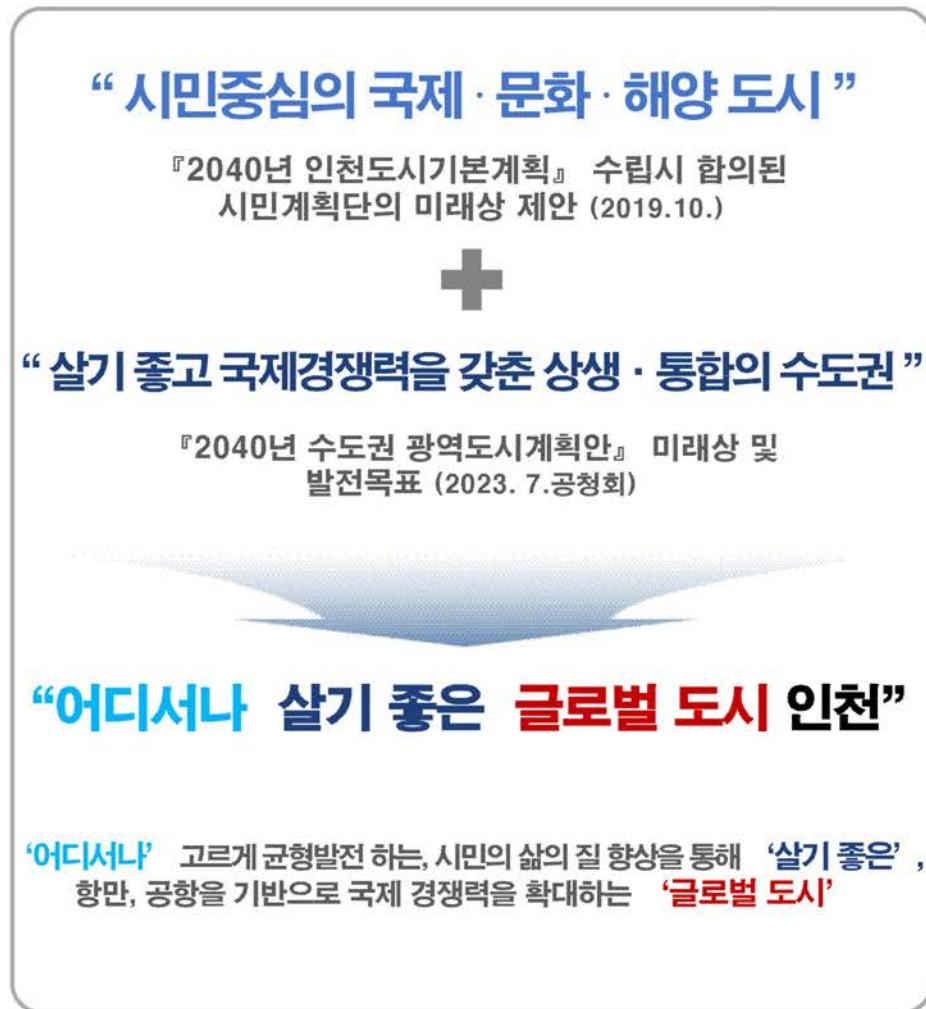
4. 미래상 설정

- 시정정책방향 검토를 위한 키워드와 관련계획 및 런던,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 제시한 비전을 종합한 “어디나 살기좋은 우리도시, 글로벌 인천”과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선정된 미래상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종합하여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미래상을 설정함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

-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를 지향하는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발전해 가자는 의지가 담겨져 있음

[그림 2-1-4]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



② 목표 및 전략

1. 목표 설정

가. 목표 및 전략 도출

- 미래상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여건 변화, 상위 및 관련계획, 국내·외 도시 비교,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상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해 3대 목표 및 9대 핵심전략과 29개 실천 전략을 설정

[그림 2-1-5] 3대 목표



[표 2-1-2] 3대 목표 및 9개 핵심전략

3대 목표		9 개 핵심전략
목표 1	'어디서나'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한 일상생활권과 유연한 토지이용 제도 운영 원도심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강화, 옹진 등 섬지역 특화 개발과 지속가능한 강화
목표 2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르고 편리한 인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녹지·하천 등 도시환경 개선 탄소중립 및 재해복원력 체계 강화
목표 3	'글로벌 도시' (국제 경쟁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구조 형성 스마트 공항과 항만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인프라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 구축

2.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달성전략

핵심전략 1. 편리한 일상생활권과 유연한 토지이용 제도 운영

■ 배경

- 중심지 위계에 맞춘 역세권 거점 설정과 입체복합개발이 여전히 중시되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혁신제도가 마련되었다.
-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원도심과 신도시, 비도시지역 삶의 다양성을 계획에 반영할 여건이 준비되었다.
- 따라서 집적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축과 원도심 도심기능 쇠퇴에 따른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해 도시공간 다각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다.
- 다핵형 공간구조와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지구를 활용하여 신개발과 원도심, 비도시 고른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창출한다.

■ 전략 1-1. 거주–일–여가가 해결되는 일상생활권 계획을 구축하고, 거주, 업무, 생활서비스, 건강, 교육 등 필수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근거리 다핵네트워크 구조를 실현한다.

- 인구증감 추세와 중심지를 감안하여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생활 편의시설의 입지를 적절히 배치하고, 권역별 생활권 체계를 보행·일상생활권, 근린생활권 등으로 위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 분산된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역세권 등 주요 거점에 집중하고, 대중교통망을 강화하여 거점 간 원활한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일상생활권의 기반을 마련한다.

■ 전략 1-2. 다핵형 공간구조를 구축하여 각 중심지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상호 연계되어 도시 내 효율적인 기능 분담과 원활한 연결을 실현한다.

- 지역 간 기능의 충돌을 줄이고 광역적 차원에서 생활권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별 도시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생활권별 중심지를 조성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적 역할을 부여하여 자족성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성을 높여 이에 부합한 인구와 토지이용을 배분한다.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제도를 활용한 역세권과 중심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사업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 기존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2단계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계 체계로 전환하여, 인천광역시의 권역별 특성에 부합한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주민과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정책의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전략 1-3. 신개발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개발밀도와 기반시설 용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원도심과 신도심 등 인구 분포와 개발밀도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권역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을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
- 또한, 매립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토지는 우선적으로 보전용도를 부여하고, 투자유치나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 수립시 이에 부합한 용도를 부여한다.

핵심전략 2. 원도심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 배경

-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 원도심 쇠퇴로 인한 청년인구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심화, 산업 약화 및 상권 침체, 도시정비 지연에 따른 안전문제 심화로 원도심 노후주택과 도시환경 정비가 시급하다.
- 도시 외연 확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 성장과 비효율적 공간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대개조와 도시공간의 기능적·물리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 주요 계획 수단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 그리고 노후 국가기반시설 상부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방안이 포함된다.

■ 전략 2-1. 경인전철 지하화와 인천대로 중심의 환승·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상부 입체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기반시설을 재편하고 현대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
- 인천대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원도심을 연결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과 상업·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간 교류를 촉진한다.
- 동서로 가로지른 기반시설로 인해 남북간 교통 비효율을 해소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균형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도시철도와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제공한다.

[그림 2-1-6] 도시기반시설 입체공간조성 예시도



■ 전략 2-2. 원도심 대개조 사업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 기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 원도심 대개조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빙집 정비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가로(complete streets)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 원도심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정비사업, 스마트도시건설, 스마트도시기반
시설사업을 확대하여 IoT 기술과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전략 2-3. 원도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와 생활이 조화
를 이루는 균형잡힌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신도시와 원도심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도심 내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응집력있고 활기찬 활동을 유도한다.
- 인천의 주력 산업인 항만·물류의 기능재배치와 연계하여 공업지역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반영한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특별정비구역 내 상업·문화·주거 복합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원도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재생의 모델로 삼는다.

핵심전략 3. 강화, 옹진 등 섬지역 특화 개발과 지속가능성 강화

■ 배경

- 도서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공공시설, 생활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 인천의 섬들이 가진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보존하면서,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서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강화·옹진 도서지역의 해양자원과 역사·문화 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서해 5도 등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개발 촉진을 통해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전략 3-1. 백령공항 건설 등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한다.

- 백령공항 건설과 여객선 지역 주민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서해5도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 특화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을 통해 서해5도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도서지역 항로 확충과 여객선 및 도로 기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도심-도서”, “도서-도서”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과 물류 이동을 활성화한다.
- 백령공항을 인천공항과 연계하여 UAM(도심향공교통) 노선을 구축하고,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연결하여 여객, 관광, 물류 이동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 전략 3-2. 강화남단 등에 기회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 영종국제도시와 강화남단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과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성장 촉진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 강화남단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화남단의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하며, 신산업공간(그린바이오), 웰니스(해양치유지구), 해양관광 기능 특화 등을 포함한 향후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 강화남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간 경제적 협력 및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전략 3-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 섬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단지, 체험형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한다.
 - 지역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관광지, 생태 관광지, 휴양형 관광단지 등으로 특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생활권별 특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핵심전략 4. 빠르고 편리한 인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 배경

- 대도시권 교통수단 간 연계와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환승시간 단축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
- 대중교통 활용도가 낮아 자가용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에서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아라뱃길,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 체계를 도입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 전략 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및 인천발 KTX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원도심 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물류 및 여객 교통망을 국가 간선교통망과 연결하여, 인천 중심의 교통망 체계를 확충한다.
- 부평, 인천시청, 인천대입구, 검암역 등 주요 환승 결절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 수단을 통합하여 통근과 통학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 도시철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버스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생활권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 4-2. 복합환승거점과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지원하고 통학 및 통근 등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응집력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인천 순환도로 확충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구월(인천터미널)과 서북부(검암역)를 중심으로 종합터미널 등 통합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 대도시권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하여 지역거점을 형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시설과 보행네트워크의 연계 배치 고려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 전략 4-3. 인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등 첨단 교통기술을 도입하여 철도-도로-항공 교통의 3차원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및 혁신적인 교통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교통 시스템을 지원한다.
 - UAM이란, Urban Air Mobility의 약어로 도심 항공 교통을 의미하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하여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도심 교통 체계를 말한다.
- 대중교통 결절점(철도역)과 연계한 복합환승체계 마련하여 환승편의 향상시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 첨단 교통 기술을 수용하고 인천이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UAM 시스템 구축, 전기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 혁신적 교통 기술을 통합한다.

■ 전략 4-4.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첨단교통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 주요 거점에 교통 환승 허브(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MaaS*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승 편의성 등을 향상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 MaaS (Mobility as a Service): 최적의 경로 제공(환승 대기 시간 감소 등)과 단일 플랫폼을 통한 교통수단 통합 결제 등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예시: 이용자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한 후,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경우, 각 교통수단마다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대신, 단일 플랫폼을 통해 통합된 금액으로 이용료를 결제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첨단 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향상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현실 세계의 기계, 장비,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여, 모의 시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해 첨단 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

핵심전략 5.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녹지·하천 등 도시환경 개선

■ 배경

- 폐기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한다.
- 종합적인 자원 순환 시스템과 녹지공간의 확장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 도시의 자연 환경을 살리고, 바람길을 조성하여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그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전략 5-1. 자원순환센터 설립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강화한다.

-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지원,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배출원 맞춤형 감량 정책 등을 통해 폐기물 사전 감량을 추진하고, 광역 자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
- 인천 녹색기후 관련 복합단지 및 클러스터(수도권매립지 및 환경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여 자원순환 및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서북부를 세계적인 환경산업 및 연구 중심지로 육성한다.
- 녹색기후 분야 국제기구와 연구·금융기관을 집적화하고, 국제회의장 및 교육·전시·교류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도시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 전략 5-2.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종합적인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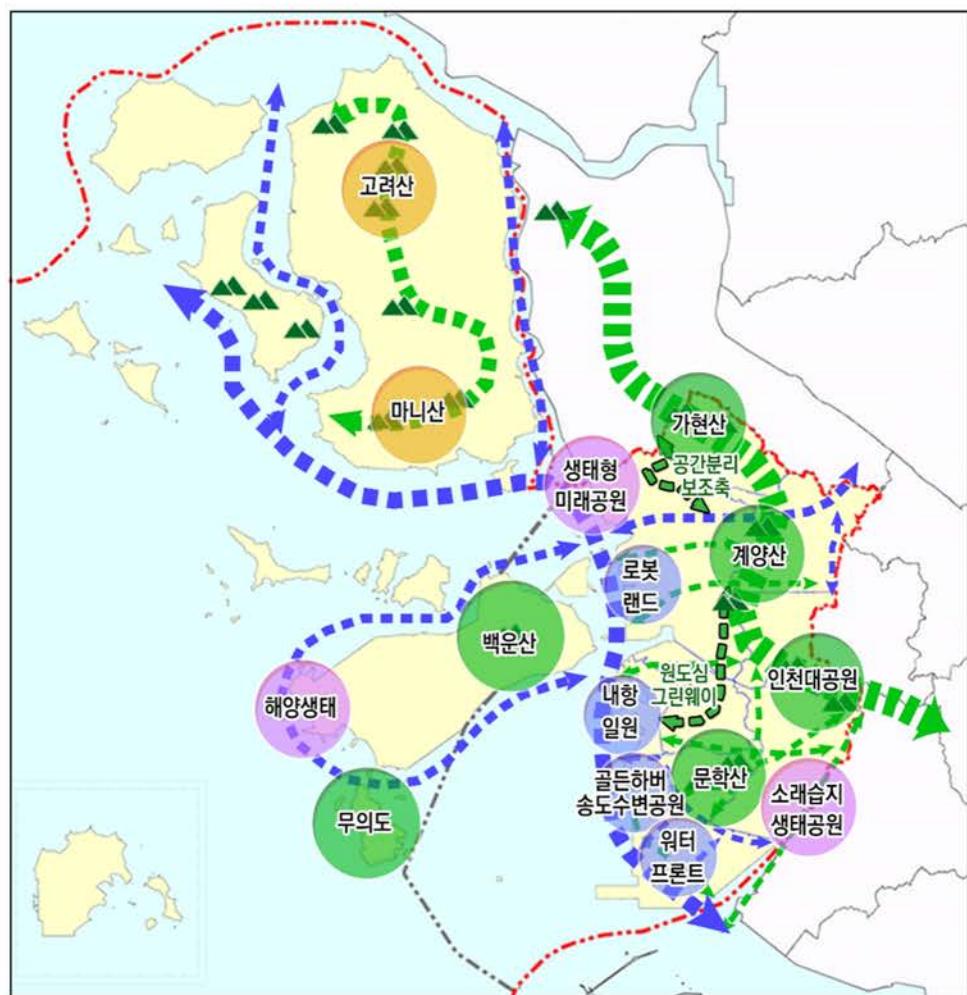
- 한남정맥 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공원으로 연결하여 인천 전역에 종합적인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식생이 우수한 녹색공간을 이어 산림생태축을 형성하며, 서해연안, 갯벌,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연안·하천 생태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 인천의 녹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식생지역, 자연녹지지역, 비오톱 1등급지역, 육상 및 해양 핵심보전지역, 보전적 관리지역(강화·옹진) 등의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단절된 녹지를 이어 주고,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인천대로 상부와 같이 녹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그림 2-1-7] 원도심 거점재생



[그림 2-1-8] 공원·녹지 연계 네트워크 구상도



■ 전략 5-3. 대기 및 소음 공해를 해결하고,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 최신 스마트 환경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음 저감 전략을 실행하여 환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 회복력 있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산림 기능 회복력을 강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핵심전략 6. 탄소중립 및 재해복원력 체계 강화

■ 배경

- 전 지구적 기후 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기후 적응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온실가스 리스크를 반영하여 공간계획 측면에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또한, 풍수해 대비 기후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남정맥 녹지축과 인천숲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C 이내로 억제할 것을 합의(제48차 IPCC 총회, 2023년)했으며, 2026년 EU 탄소국경세 법제화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등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
- 탄소중립도시 구축 및 재해대응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탄소중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과 방재 안전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추진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 전략 6-1.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및 탄소저감 정책의 실현을 도모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석탄 화력발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감축을 이루도록 한다.
 - 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국 5위(74,813천 톤 CO₂-eq)로, 발전과 산업 분야에서 인천 지역 총 배출량의 75.6%를 차지(2045 탄소중립 전략계획).
- 화석 발전 등 탄소배출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다.
-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재활용 촉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

- 철도망, 환승센터,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정책(I파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한다.

■ 전략 6-2.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포용적 재난 예방 대응 정책을 마련한다.

- 재난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정기적인 안전 훈련 및 비상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 대응력을 증진한다.
- 기반시설 재해 예방능력과 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사전예방형 안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피난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하며 평상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
- 장애인, 고령자,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 전략 6-3. 환경 지속기능성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마트 항만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주택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미래형 에너지 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 인천신항을 중심으로 스마트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항만 운영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며, 친환경 하역 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규제, 수소 항만 육성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핵심전략 7.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구조 형성

■ 배경

- 인천은 기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시의 입지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과 로컬을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지로, 인천은 이들 인프라를 통해 세계 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프라적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과 미래산업을 결합하면, 경제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신산업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은 미래산업을 수용하고, 해당 산업에 맞는 인프라와 정책을 마련하여 입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 다각화와 혁신을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전략 7-1.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헬스, 항공MRO,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지구로 육성한다.

-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헬스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및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지식·관광서비스 산업과 스마트제조 산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첨단 항공정비(MRO) 등 항공·복합물류 산업, 관광서비스 산업, 자유무역지역 등 국제적인 공항경제권 모델을 선도한다.
- 청라국제도시는 로봇 실증지원센터와 미래차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로봇 및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한다.

■ 전략 7-2. 원도심의 노후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여 통한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 남동, 부평, 주안 산업단지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검단 뷰티풀 파크와 연계하여 발전시킨다.

■ 전략 7-3.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로봇 등 첨단미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분산하고, 경제 기반의 다변화를 촉진하여 균형 잡힌 성장 환경을 만든다.

-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업별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 및 학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첨단 미래산업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로봇, 바이오, 반도체, UAM, SW융합, 지역 R&D 플랫폼, 창업벤처, 수소산업, 농촌융복합산업 및 미래차 산업을 융합하여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AI 혁신 생태계 트리플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파크, 테크노파크를 연계하여 AI 기반의 소프트웨어(SW) 융합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AI 거점 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 물리적인 창업 지원 센터의 설립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 전략 7-4.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총 7개소)를 기업 친화적이고 시민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 스마트 제조혁신 및 정보 공유, 전통 제조업과 지식 기반 클러스터의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 혁신형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거점 산업단지와 연계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남동,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와 겸단 뷰티풀 파크를 중심으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는 지원 공간 마련, 산업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기술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 전략 7-5. 인천 특화형 물류인프라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한다.

- 수도권과 주요 공항 및 항만을 연결하는 물류·여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교통망을 개선하여 국제 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노후 산업단지와 도심 인근의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해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고속도로와 철도 부지 등을 이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 디지털 물류 인프라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수출입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핵심전략 8. 스마트 공항과 항만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배경

- 인천은 수도권 근접성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을 통해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네트워크 확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활용해 공항과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 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글로벌 물류 및 항공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천을 글로벌 항공 및 해상 교통의 중요한 중심지로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및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스마트 항만과 공항의 구축에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및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전략 8-1.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한다.

- 인천국제공항 인프라 확장, 항공 MRO 산업 확장, 자유무역지대 단계별 확대 등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글로벌 항공 물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첨단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항만별 특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국제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 전략 8-2. 인천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물류와 글로벌 무역을 지원한다.

- 해상-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로 항만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항만 기술을 도입한다.
-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항만 운영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 항만운영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항만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인다.
-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항만별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공항·항만을 연계한 국제물류 거점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전략 8-3. 해양-항공(Sea&Air) 물류를 통합하여 종합 운송체계를 구축한다.

- 해상과 항공 물류를 결합하여 종합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교통망을 개선한다.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기반의 통합·통관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하역절차 축소를 통해 환적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복합운송 물류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항공 물류허브로써의 입지를 강화한다.
- 인천공항-인천항과 연계한 Sea & Air 화물의 지속적 증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확대조성을 통해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핵심전략 9. 다양한 인프라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 구축

■ 배경

- 인천은 개항장, 역사, 문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각각의 고유 특성을 살려 발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 특히, 수도권 내 중요한 위치와 글로벌 교통망을 갖춘 인천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활기차게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지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지로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 전략 9-1. 수변 지역과 해양 친수 공간을 개발하여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인천 내항, 남항 등 항만의 기능 재편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수변공간을 재개발하고, 재개발 지역과 주변이 함께 성장하여 도시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의 크루즈 항로와 연계하여 옹진 연안권 마리나 및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 연안 도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서해-아라뱃길-한강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고, 섬 관광명소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 전략 9-2. 해양 역사문화 허브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해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관광과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국립 해양박물관 등 해양 관광과 문화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해양과 주변 지역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 전략 9-3. 수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활발히 촉진하고, 워터프런트 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의 매력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 인천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물환경 기반 레크레이션 공간과 워터프런트를 조성한다.
- 아라뱃길 등 시민들이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지역사회 문화 행사를 연계하여 발굴한다.
- 지속 가능한 물환경을 고려한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제2장 계획지표 설정

① 인구지표

② 경제 및 환경지표

1 인구지표

1.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는 도시의 미래상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척도로 토지이용 및 각종 기반시설 공급의 기준지표가 되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 지표
-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 요소로 주택·교통·환경·상하수도·공원·녹지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기에 관련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척도임에 합리적으로 산정
- 또한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안정·성장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의 인구변화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개발가용 토지자원과 인구 수용능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및 단계별 인구지표를 산정

나. 설정 기준

- 인구지표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2023.12.28. 개정)을 준용하여 설정
- 산출된 인구지표가 상위계획상의 지표 또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비교하여 신뢰도 검토

[표 2-2-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4-2-5

<p>① 주야간인구 및 가구(세대)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과 인구수용 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의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함.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 이하로 하여야 함. 다만,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110% 이하 가능</p> <p>② 상주인구 추정은 원칙적으로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p> <p>■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기본적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정) 생잔모형 : 통계청의 해당 지역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합리성 증명. 단,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전출인구비율을 반영하여 계상 (변경) 통계청 장래인구를 권장 : 통계청 장래인구를 사용할 경우 공청회 개최일 기준 최신자료를 사용 추세연장법 :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하여 인구추계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불가 <p>■ 사회적증가분 추정방법(보조적 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증가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며, 인구의 유입량은 그 지역의 과거사례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실제로 유발가능한 '가능유발인구'를 결정
--

2. 인구 현황

가.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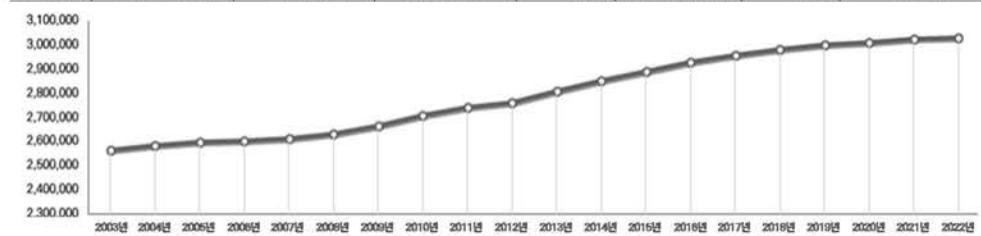
■ 인구추이

- 2022년 인구는 3,039,163인, 1,322,632세대로 세대당 인구수는 2.30인으로 구성됨
- 2000년대 중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인구 구성은 남자가 50.2% 1,525,371인, 여자가 49.8% 1,513,792인으로 대등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003년 6.2% 160,660인에서 2022년 15.3% 463,850인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세대당 인구는 2003년 2.92명에서 2022년 2.3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2-2-2] 인구 추이

(단위 : 인, %, 세대)

연도	인구			인구 증가율	세대	세대당 인구	65 세 이상 고령자
	계	남	여				
2003년	2,601,278	1,318,560	1,282,718	0.20	891,606	2.92	160,660
2004년	2,610,715	1,322,272	1,288,443	0.36	908,673	2.87	169,549
2005년	2,632,178	1,331,830	1,300,348	0.82	933,686	2.82	178,602
2006년	2,663,854	1,349,832	1,314,022	1.20	965,302	2.76	189,940
2007년	2,710,040	1,372,611	1,337,429	1.73	995,712	2.72	204,880
2008년	2,741,217	1,386,673	1,354,544	1.15	1,014,755	2.70	215,860
2009년	2,758,431	1,394,068	1,364,363	0.63	1,026,936	2.69	226,610
2010년	2,808,288	1,421,439	1,386,849	1.81	1,059,664	2.65	237,805
2011년	2,851,491	1,441,503	1,409,988	1.54	1,077,563	2.65	250,528
2012년	2,891,286	1,459,692	1,431,594	1.40	1,097,491	2.63	260,107
2013년	2,930,164	1,478,862	1,451,302	1.34	1,118,988	2.62	282,471
2014년	2,957,931	1,492,104	1,465,827	0.95	1,136,280	2.60	298,818
2015년	2,983,484	1,503,639	1,479,845	0.86	1,154,004	2.59	312,905
2016년	3,002,172	1,512,065	1,490,107	0.63	1,171,399	2.56	324,255
2017년	3,011,138	1,515,950	1,495,188	0.30	1,188,917	2.53	345,024
2018년	3,022,511	1,521,044	1,501,467	0.38	1,213,201	2.49	362,675
2019년	3,029,285	1,523,404	1,505,881	0.22	1,238,641	2.45	384,548
2020년	3,010,476	1,512,095	1,498,381	-0.62	1,267,956	2.37	411,483
2021년	3,014,739	1,513,277	1,501,462	0.14	1,298,647	2.32	435,431
2022년	3,039,163	1,525,371	1,513,792	0.81	1,322,632	2.30	463,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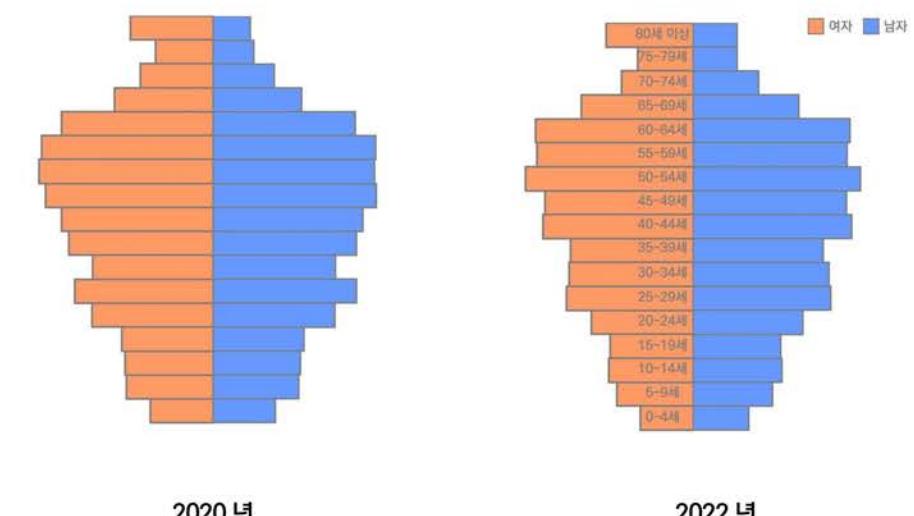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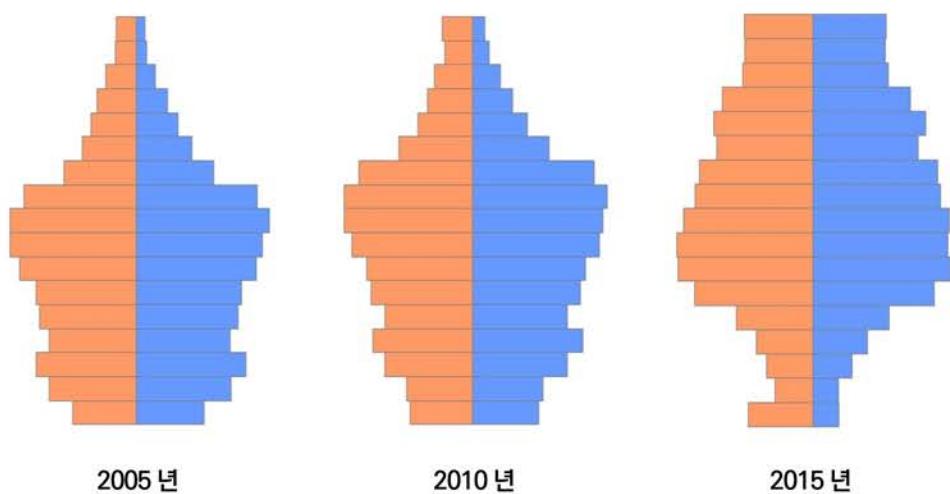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04년~2023년

■ 연령별 인구구조

- 연령별 인구수를 인구 피라미드화 하여 살펴보면, 2000년 인구구조는 25~44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별형'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인구구조는 점차 '별형'에서 유년인구의 지속 감소, 노령인구(2015년 65세 이상 인구 10.7%)의 지속 증가 추세로 '방추형'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방추형'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생률 및 사망률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됨

[그림 2-2-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04년~2023년

■ 저출산·고령화 추이

- 2010년 정점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어 안정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3년 기준 전체 인구의 6.2%에서 2023년 현재 15.3%까지 증가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2003년 10.4%에서 2023년 현재 4.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3] 인천광역시 고령화/조출생률 추이

(단위 : 인, %)

연별	인구	인구 증가율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화 비율	출생아수	조출생률
2003년	2,601,278	0.20	160,660	6.2	26,832	10.4
2004년	2,610,715	0.36	169,549	6.5	25,092	9.7
2005년	2,632,178	0.82	178,602	6.8	23,026	8.9
2006년	2,663,854	1.20	189,940	7.1	23,711	9.1
2007년	2,710,040	1.73	204,880	7.6	26,712	10.1
2008년	2,741,217	1.15	215,860	7.9	25,365	9.5
2009년	2,758,431	0.63	226,610	8.2	24,379	9.0
2010년	2,808,288	1.81	237,805	8.5	25,752	9.5
2011년	2,851,491	1.54	250,528	8.8	26,118	9.5
2012년	2,891,286	1.40	260,107	9.0	27,781	9.9
2013년	2,930,164	1.34	282,471	9.6	25,560	9.0
2014년	2,957,931	0.95	298,818	10.1	25,786	9.0
2015년	2,983,484	0.86	312,905	10.5	25,491	8.8
2016년	3,002,172	0.63	324,255	10.8	23,609	8.1
2017년	3,011,138	0.30	345,024	11.5	20,445	7.0
2018년	3,022,511	0.38	362,675	12.0	20,087	6.9
2019년	3,029,285	0.22	384,548	12.7	18,522	6.3
2020년	3,010,476	-0.62	411,483	13.7	16,040	5.5
2021년	3,014,739	0.14	435,431	14.4	14,947	5.1
2022년	3,039,163	0.81	463,850	15.3	14,464	4.9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04년~2023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03년~2022년

나.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현황

- 군·구별 인구는 서구 601,178명(19.8%), 남동구 517,473명(17.0%), 부평구 503,419명 (16.6%) 순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군·구별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0.14%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큰 상위 3개 지역은 중구, 연수구, 서구는 송도·청라·영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원도심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2-4] 군·구별 인구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인천광역시	3,022,511	3,029,285	3,010,476	3,014,739	3,039,163	0.14
중구	126,522	139,385	143,656	147,535	157,050	5.55
동구	67,161	65,362	63,397	62,335	59,889	-2.82
미추홀구	425,471	418,494	413,246	416,551	416,412	-0.54
연수구	357,362	379,727	399,869	402,103	400,052	2.86
남동구	549,691	545,131	536,938	529,200	517,473	-1.50
부평구	538,137	526,126	508,881	500,546	503,419	-1.65
계양구	315,903	306,817	299,904	298,802	292,112	-1.94
서구	551,311	557,415	553,890	566,676	601,178	2.19
강화군	69,726	70,037	70,025	70,456	70,671	0.34
옹진군	21,227	20,791	20,670	20,535	20,907	-0.38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19~2023년

- 총 인구밀도는 28.50인/ha으로 나타나는 반면 군·구별 인구밀도는 미추홀구 167.71인/ha, 부평구 157.32인/ha, 남동구 및 동구가 각각 95.07인/ha, 83.18인/ha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냄

[표 2-2-5] 군·구별 인구밀도

(단위 : 명, km², 인/ha)

구 분	인구	면적	인구밀도	비 고
인천광역시	3,039,163	1,066.47	28.50	135 개동
중구	157,050	140.37	11.19	11 개동
동구	59,889	7.20	83.18	11 개동
미추홀구	416,412	24.83	167.71	21 개동
연수구	400,052	56.19	71.20	15 개동
남동구	517,473	57.45	90.07	20 개동
부평구	503,419	32.00	157.32	22 개동
계양구	292,112	45.57	64.10	12 개동
서구	601,178	118.49	50.74	23 개동
강화군	70,671	411.42	1.72	-
옹진군	20,907	172.95	1.21	-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23년

- 전국 광역시와 비교할 때 서울특별시 155.67인/ha(5.5배), 부산광역시 42.8인/ha(1.5배), 광주광역시 29.8인/ha(1.1배)로 4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냄

[표 2-2-6] 도시별 인구밀도 현황

(단위 : 천인, km², 인/ha)

구 분	인구	면적	인구밀도
서울특별시	9,421	605	155.67
인천광역시	3,039	1,066	28.50
부산광역시	3,303	771	42.82
대구광역시	2,372	885	26.79
광주광역시	1,470	501	29.33
대전광역시	1,472	539	27.28
울산광역시	1,114	1,062	10.48

자료 :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e-나라지표, 2022년

다. 인구이동 현황

■ 인천광역시 전입·전출인구 추이

- 전입·전출 인구현황을 보면 전입인구는 395,140명(14.2%), 전출인구는 367,039명 (14.3%)으로 전입·전출 인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10~2016년 순이동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감소 추세로 나타남

[표 2-2-7] 전입·전출현황

(단위 : 인, %)

구분	총이동				시군· 구내	시군·구간		시도간		순이동 (A-B)
	전입 (A)	이동률	전출 (B)	이동률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3년	461,613	15.8	439,578	15.0	159,934	137,512	137,512	164,167	142,132	22,035
2014년	452,297	15.3	442,973	15.0	162,728	132,647	132,647	156,922	147,598	9,324
2015년	473,223	15.9	463,685	15.5	174,846	139,776	139,776	158,601	149,063	9,538
2016년	441,646	14.7	435,869	14.5	161,701	129,082	129,082	150,863	145,086	5,777
2017년	409,465	13.6	411,135	13.7	147,772	118,622	118,622	143,071	144,741	-1,670
2018년	433,639	14.4	433,706	14.4	155,992	131,244	131,244	146,403	146,470	-67
2019년	420,014	14.2	422,351	14.3	150,091	125,990	125,990	143,933	146,270	-2,337
2020년	444,556	15.1	460,304	15.6	163,316	134,310	134,310	146,930	162,678	-15,748
2021년	433,137	14.7	421,714	14.3	150,553	126,760	126,760	155,824	144,401	11,423
2022년	395,140	13.4	367,039	12.4	123,107	116,812	116,812	155,221	127,120	28,101

주 : 이동률 = 이동자수/{(전년말인구+현년말인구)/2}x100 단, 외국인제외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14년~2023년

■ 주요도시 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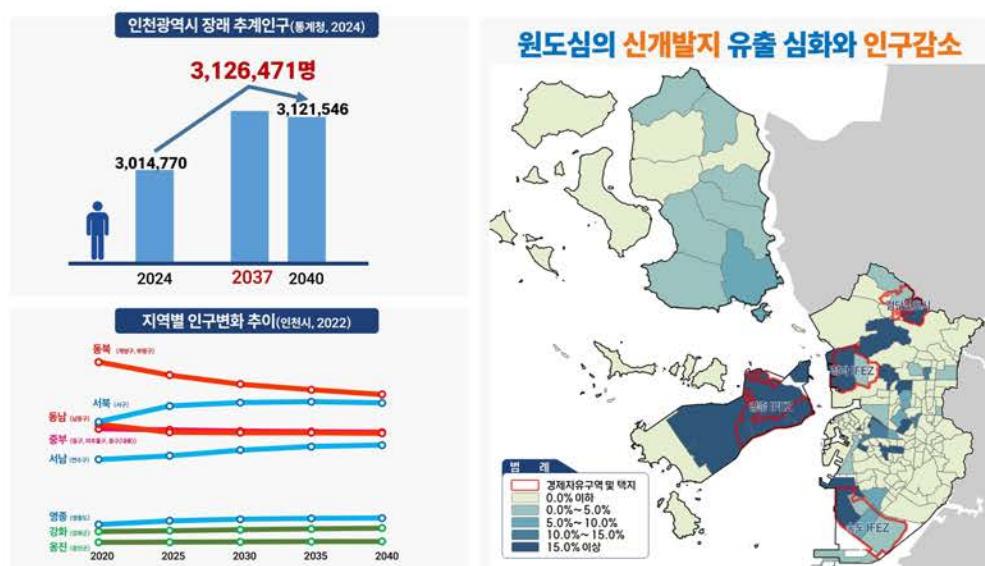
- 인구전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73,259인, 18.5%), 서울(43,887인, 11.1%), 충남 (5,927인, 1.5%) 순으로 나타나며, 인천광역시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이동이 239,919인에 달하는 60.7%로 나타남
- 인구전출 비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2-2-8] 주요도시 간 인구이동 현황

(단위 : 인, %)									
구분	전국	시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입	395,140	239,919	43,887	2,709	1,949	1,806	2,469	1,056	777
비율	100.0	60.7	11.1	0.7	0.5	0.5	0.6	0.3	0.2
전출	367,039	239,919	32,387	2,026	1,452	1,340	2,262	747	894
비율	100.0	65.4	8.8	0.6	0.4	0.4	0.6	0.2	0.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입	73,259	4,003	3,250	5,927	3,025	2,828	3,411	2,989	1,876
비율	18.5	1.0	0.8	1.5	0.8	0.7	0.9	0.8	0.5
전출	56,161	4,843	3,905	7,572	2,776	2,802	3,175	2,602	2,176
비율	15.3	1.3	1.1	2.1	0.8	0.8	0.9	0.7	0.6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23년

[그림 2-2-2] 장래 인구 및 지역별 인구변화



■ 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 최근 10년간 군·구별 인구추이는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순으로 인구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개발사업 및 서창지구, 소래·논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보여짐
- 단,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의 경우 타 시도의 인구유입이 높은 반면 신도시 보다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군·구간 이동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의 원도심 인구가 인천광역시 외곽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군·구간 이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원도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예측됨

[표 2-2-9] 최근 10년간 군·구간 인구이동 현황(2012년~2022년)

(단위 : 인)

구 분	등록인구 현황 (외국인 인구 제외)			군·구간 이동			시도간 이동		
	2012 년	2022 년	증감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인천 광역시	2,879,782	2,967,314	증) 87,532	116,812	116,812	-	155,221	127,120	감) 28,101
중구	107,774	152,931	증) 45,157	11,321	6,808	감) 4,513	13,232	8,177	감) 5,055
동구	75,093	58,999	감) 16,094	3,546	5,110	증) 1,564	1,391	1,642	증) 251
미추홀구	411,330	406,004	감) 5,326	20,749	20,368	감) 381	16,998	16,288	감) 710
연수구	300,305	385,796	증) 85,491	11,135	14,600	증) 3,465	18,215	18,692	증) 477
남동구	507,021	506,181	감) 840	15,920	23,879	증) 7,959	18,096	20,495	증) 2,399
부평구	556,985	489,118	감) 67,867	17,449	17,047	감) 402	24,342	20,476	감) 3,866
계양구	343,806	288,856	감) 54,950	7,009	11,768	증) 4,759	10,728	11,453	증) 725
서구	490,035	589,013	증) 98,978	26,853	14,960	감) 11,893	46,506	24,897	감) 21,609
강화군	66,735	69,803	증) 3,068	1,761	1,368	감) 393	3,636	3,171	감) 465
옹진군	20,698	20,613	감) 85	1,069	904	감) 165	2,077	1,829	감) 248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13년~2023년

3. 계획인구 산정

가. 자연적 증가인구 산정

■ 추정방법

-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 중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기반으로 자연적 증가인구 산정
 - 추세연장법은 과거 성장추세를 연장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저성장시대의 대응이 어렵고, 지나치게 과도한 인구산정 초래
- 인천광역시의 도시규모, 군·구별 인구변화 추이 및 지역별 개발여건 등을 반영하고,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고려하여 군·구별 자연적 증가인구를 산정을 통해 목표연도 계획인구 추정
 - 군·구별 장래인구특별추계(인천데이터 포털, 통계청)를 활용하여 군·구별 인구 산정

■ 자연적 증가인구 산정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0년)를 기준으로 군·구별 자연적 증가인구 산정

[표 2-2-10] 군·구별 장래인구특별추계

(단위 : 인)

행정구역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천광역시	2,951,030	3,058,301	3,097,645	3,122,875	3,121,546
중구	135,760	165,398	177,452	184,077	187,356
동구	61,753	57,838	55,809	55,317	55,331
미추홀구	413,692	418,342	416,547	417,408	416,601
연수구	371,997	408,462	438,927	458,661	467,844
남동구	534,924	513,617	517,774	521,634	522,029
부평구	505,577	483,754	462,300	448,849	437,729
계양구	294,626	286,192	275,094	268,292	262,799
서구	548,284	631,514	654,122	663,062	661,318
강화군	65,572	72,312	77,421	82,024	85,871
옹진군	18,845	20,871	22,199	23,551	24,66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 인천데이터포털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의 군구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나.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

■ 추정방법

- 사회적 증가 인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며, 인구의 외부유입량은 인천광역시

지역적 특성 및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실제로 유발 가능한 '가능유발인구' 결정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기 승인된 사업은 계획의 일관성 측면에서 반영하되, 계획인구 및 세대수, 인구밀도,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시기 및 개발규모 등을 재검토
- 노후계획도시 정비,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등 국가 및 지역정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계획인구의 적정규모 검토를 통해 사회적증가인구 반영
-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 승인을 얻은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승인 · 허가를 얻은 경우 반영. 단, 실시계획인가 · 승인 이전단계 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여부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 상 반영된 사업 또는 인천광역시 및 군 · 구별 전략적 추진사업
 - 인천광역시 및 군 · 구,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 민간 개발사업 중 해당사업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이거나 개별법에 의한 법적 동의요건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업
 - 민간 개발사업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

■ 사회적 증가인구 외부유입률 산정

- 인천광역시 지역적 특성 및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외부유입률 산정
 - 과도한 계획인구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별 실현 가능한 외부유입률 적용

[표 2-2-11]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구 분		경제자유 구역	공공주택 지구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노후계획 도시	기타
외부 유입률 (%)	기정	50	-	40	30	-	20
	변경	25	20	20	10	10	10

[표 2-2-12] 경기도 市별 외부유입률 기준

구 分	외부유입률(%)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기타
평균	44	46	46	34	36	36	40
김포시	55	70	40	35	40	35	35
부천시	40	40	40	30	25	30	40
시흥시	50	50	60	30	30	35	45
안산시	30	30	55	30	30	30	35
고양시	40	50	40	35	40	35	45
안양시	40	40	45	35	40	40	50
광명시	45	45	45	45	50	50	35
수원시	50	40	40	30	35	30	35

자료: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경기도, 2024년

■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및 주택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평균 개발밀도(총 밀도기준 218인/ha)를 고려한 신규 개발사업 시 200인/ha 이하의 적정 개발밀도로 계획
 - 개발계획 상 총 밀도 200인/ha 이상 개발사업은 200인/ha 이하로 조정하여 계획인구 반영
 - 단, 구역지정 또는 개발계획 승인 등 결정고시 지구는 개발계획 인구수 유지
-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는 최대 허용 인구수로 향후 개별사업 자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군구별 관리방안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지역별 별도의 생활권계획, 개발밀도 등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도시기본계획 상 사업별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관리방안을 우선하여 적용

■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

- 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 사회적 증가인구(가능유발인구)는 당초 총 424천인에서 총 181천인으로 변경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기 승인되어 준공 완료된 사업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입주인구는 계획인구에서 제외
 - 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을 적용하여 사회적 증가인구(가능유발인구) 추정

[표 2-2-13]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

구 분	면적 (천㎡)	개소 수 (개소)	계획인구 (천인)	외부유입률 (%)	가능유발인구 (천인)	비고
계	153,696	122	1,207	-	181	
경제자유구역	97,725	9	247	25	62	
공공주택지구	6,606	4	106	20	21	
택지개발사업	11,106	1	120	20	24	
도시개발사업	20,112	42	365	10	37	
노후계획도시	12,076	5	119	10	12	
기타 1)	6,072	61	250	10	25	

자료 : 인천광역시 및 군·구별 관련부서(유관기관) 검토자료

주1) 기타 : 도심 공공주택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46개소) 등

다. 목표연도 계획인구 산정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인구를 산정한 결과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는 당초와 동일한 330만 명으로 산정
 -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 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2023.12)에 따라 최신 통계청 장래인구를 적용하여 288만 명에서 312만 명으로 24만 명 증가
 - 사회적 증가인구는 국가 및 지역 정책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유형별 외부유입률 현실화 등을 통해 당초 4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24만 명 감소

[표 2-2-14]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

(단위 : 만 명)

구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95	302	312	327	325	330	330	330	330	-
자연적 증가인구	-	284	306	288	310	289	312	288	312	증) 24
사회적 증가인구 (가능유발인구)	-	18	6	39	15	41	18	42	18	감) 24

주) 현재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라. 인구지표 검증

- 인구산정 결과 2040년 통계청 장래인구 대비 105.8%로 산정됨
 - 인천광역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GTX-B, KTX 신설 등 광역 접근성이 더욱 개선됨에 따라 인접 시도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2-3] 계획인구 대비 통계청 장래인구 비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 2022년 기준, 중위 추계

4. 단계별 계획인구

[표 2-2-15] 단계별 계획인구 산정

[단위: 명]

구 분		계	단계별 계획인구 ¹⁾			
			1 단계 (2021~2025)	2 단계 (2026~2030)	3 단계 (2031~2035)	4 단계 (2036~2040)
	합 계	1,207,140	396,070	590,418	186,548	34,104
	소 계	235,908	46,242	113,572	71,615	4,479
중부 생활권	시가화 용지	소 계	235,908	46,242	113,572	71,615
		계	75,212	1,500	14,059	55,174
		내향 1·8 부두	7,079	-	7,079	-
		내향 2~7 부두	18,125	-	-	18,125
		벤처하버파크	15,928	-	-	15,928
		마리나인시티	7,854	-	-	7,854
		인천역 복합개발	1,460	-	1,460	-
		대한싸이로	2,754	-	2,754	-
		SK 정유단지	13,267	-	-	13,267
		동인천역복합개발	2,766	-	2,766	-
		만석지구	5,979	1,500	-	-
		주안 2·4 재정비촉진지구	26,663	3,329	6,893	16,441
		용현·학익구역	48,442	6,642	41,800	-
		도화구역	1,235	-	1,235	-
		문학구역	2,500	2,500	-	-
		제물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8,540	-	8,540	-
		주택정비사업(19 개소)	73,316	32,271	41,045	-
		소 계	85,957	26,551	33,761	25,645
영종 생활권	시가화 용지	소 계	77,103	25,813	25,645	25,645
		영종하늘도시	63,108	11,818	25,645	25,645
		미단시티 조성사업	13,995	13,995	-	-
		시가화예정용지	8,854	738	8,116	-
서남 생활권	시가화 용지	소 계	212,755	104,837	78,468	14,725
		소 계	193,247	104,837	58,960	14,725
		송도국제도시	105,806	78,306	27,500	-
		동춘 1 구역	1,575	1,575	-	-
		송도역세권구역	8,921	7,177	1,744	-
		대우자판부지	12,500	-	12,500	-
		무주골공원	2,500	2,500	-	-
		송도 2 공원	900	-	900	-
		연수 택지개발구역	58,900	14,725	14,725	14,725
		주택정비사업(2 개소)	2,145	554	1,591	-
		시가화예정용지	19,508	-	19,508	-

구 분		계	단계별 계획인구 ¹⁾			
			1 단계 (2021~2025)	2 단계 (2026~2030)	3 단계 (2031~2035)	4 단계 (2036~2040)
동남 생활권	소 계	104,380	16,757	70,523	8,550	8,550
	시가화 용지	소 계	60,380	16,757	26,523	8,550
	고잔 2 구역	6,572	-	6,572	-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1,125	1,125	-	-	
	구월 택지개발구역	13,400	3,350	3,350	3,350	
	만수 택지개발구역	20,800	5,200	5,200	5,200	
	구월 농산물시장	5,135	-	5,135	-	
	구월 아트스퀘어	1,210	1,210	-	-	
	주택정비사업(4 개소)	12,138	5,872	6,266	-	
	시가화예정용지	44,000	-	44,000	-	
동북 생활권	소 계	200,821	76,222	105,370	12,879	6,350
	시가화 용지	소 계	171,521	62,222	90,070	12,879
	청천농장	6,200	-	6,200	-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복합	5,768	-	-	5,768	
	동암역 도심 공공주택복합	4,392	-	4,392	-	
	방죽구역	283	283	-	-	
	효성구역	10,195	10,195	-	-	
	풍산금속	3,277	3,277	-	-	
	계양 테크노밸리	41,666	-	41,666	-	
	갈산 · 부평 · 부개 택지개발구역	12,700	3,175	3,175	3,175	
서북 생활권	시가화 용지	계산 택지개발구역	12,700	3,175	3,175	3,175
	주택정비사업(19 개소)	74,340	42,117	31,462	761	
	시가화예정용지	29,300	14,000	15,300	-	
	소 계	363,954	124,055	186,765	53,134	-
	시가화 용지	소 계	190,660	113,016	76,115	1,529
	청라국제도시	15,016	7,508	7,508	-	
	검단신도시	120,135	60,000	60,135	-	
	검단 3 구역	11,429	11,429	-	-	
	루원시티	1,360	1,360	-	-	
	가정 2 공공주택지구	4,262	4,262	-	-	
강화 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16,183	16,183	-	-
	소계	1,406	1,406	-	-	-
	시가화예정용지	1,406	1,406	-	-	-
	시가화예정용지	1,406	1,406	-	-	-
옹진 생활권	소계	1,959	-	1,959	-	-
	시가화예정용지	1,959	-	1,959	-	-

주1) 단계별 계획인구는 총 계획인구에서 기 입주 인구를 제외한 인구

2 경제 및 환경지표

1. 설정기준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한 3대 지표체계는 인구, 경제, 환경(생활/복지/여가) 지표로 구분되어 개략적으로 지표항목 제시
 - 경제 : 경제규모(GDP), 산업구조(산업별생산, 고용), 소득, 소비구조, 재정
 - 환경 : 생활환경(주택,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대기질 등)
복지환경(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가환경(체육시설, 공원, 녹지, 유원지 등)
- 계획지표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발전단계에 따라 예측
-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 HABITAT) 등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 경쟁력을 발간하는 글로벌도시경쟁력보고서(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의 지표를 추가

2. 설정방향

■ 양적지표에서 질적지표로 전환

- 성장관리위주의 양적계획지표에서 실제 생활밀착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전환하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량적 도시지표 위주로 선정

■ 도시미래상 및 중점전략과 부합하는 지표 설정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 및 중점추진전략, 그에 따른 세부 실천전략과 연계된 계획지표를 선정하되, 기정 계획검토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지표체계를 마련

■ 트렌드를 반영한 지표 설정

-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다문화 가정 증가, 4차 산업혁명시대, 기후환경 변화, 삶의 질 및 여가 중심 등의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설정

■ 현실성 없는 지표 제외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건 및 인천광역시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존 지표 제외

3. 계획지표 설정

가. 경제지표

■ 경제규모(GRDP) 및 산업구조

- 인천광역시는 핵심기술 및 연구개발 기반 취약하며, 제조혁신기업들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추세로 경제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지역내 실질적인 고용수준을 분석·제시하여 경제 저성장 고착화 및 사회문제 심화를 막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표지표를 설정

[표 2-2-16]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계획지표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경제활동 참가율	%	64.2	70.4	73.5	76.6	79.7
산업별 GRDP 비중	1 차산업	%	0.3	0.4	0.5	0.5
	2 차산업	%	29.0	20.0	18.0	16.0
	3 차산업	%	70.7	76.8	79.5	81.5
고용률	%	61.3	63.2	65.0	67.0	70.0
실업률	%	4.6	4.2	3.8	3.4	3.0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92,101	105,867	121,690	139,877	160,783
구인구직 AI 매칭 프로그램	명	5,100	8,450	11,800	15,150	18,500
창업생태계 인프라 구축	개소	15	17	19	21	23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개소	7	9	11	16	22
안테나숍 확충	개소	4	8	14	20	26
6 차산업인증사업자	개소	-	25	50	60	70
사업체 10 만개당 사회적기업(인증)수	개수	78.5	112.5	146.4	180.3	214.2

■ 소득 및 소비구조

- 지역경제의 순환과 구조를 생산, 분배, 지출 등으로 파악하여, 지역소득 및 소비 실태를 통한 지역경제 관리지표로 활용

[표 2-2-17] 소득 및 소비구조 계획지표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1 인당 지역내총생산	천원	31,126	34,883	39,094	43,812	49,100
1 인당 지역총소득	천원	33,820	40,822	49,275	59,477	71,791
1 인당 개인소득	천원	20,083	24,301	29,404	35,578	43,050
1 인당 민간소비	천원	17,012	20,120	23,796	28,144	33,285

나. 환경지표

- 환경지표는 도시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환경지표는 1차적 기본요소인 생활환경, 2차적 필요요소인 복지환경, 3차적 선택요소인 여가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

■ 생활환경지표

- 주민의 일상생활 여건을 진단하고 생활환경 정책 목표의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돋는 실용적인 지표를 설정
- 일상생활에서 주민생활여건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표 2-2-18] 생활환경 계획지표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획인구	기정	만명	295	302	327	330	330
	변경	만명	295	312	325	330	330
가구	가구당 인구	인/가구	2.64	2.52	2.44	2.37	2.30
주택	주택보급률	%	101.2	103.0	104.0	104.5	105.0
	총 주택수	만호	113	131	155	157	157
	공공임대주택비율	%	7.4	8.5	10.5	12.5	15.0
	상수도 보급률	%	99.0	99.4	99.5	99.5	99.5
상수도	계획유수율	%	90.0	91.0	92.0	93.0	94.0
	일평균 수요량	천m ³ /일	1,005	1,094	1,101	1,093	1,075
	일평균 급수 원단위	Lpcd	340	339	335	332	327
	일최대 급수 원단위	Lpcd	399	398	392	389	383
	5 대 생태하천 수질관리	PPM	4.6	4.1	3.5	3.0	3.0
	수질만족도	%	22.8	27.3	31.7	36.2	40.6
	노후하수도관 정비	km	247	466	222	475	475
하수도	계획하수량	천m ³ /일	1,401	1,568	1,632	1,693	1,693
	공장폐수량	천m ³ /일	1,702	1,725	1,725	1,774	1,774

[생활환경 계획지표(계속)]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5.8	17.8	35.8	40.0	50.0
	에너지 절감	%	3.0	7.0	9.0	12.0	15.0
대기질	미세먼지농도(PM2.5)	$\mu\text{g}/\text{m}^3$	22	17	15	15	15
	대기질 만족도	%	23.9	28.5	33.1	37.7	42.4
폐기물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	59.6	61.1	68.0	70.0	72.0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kg/일	0.99	0.83	0.80	0.78	0.75
교통	녹색교통분담률	%	55	60	70	75	80
	주차장 확보율	%	100.1	104.9	112.0	125.5	130.0
	주택가주차장 확보율	%	66.3	72.8	79.3	85.8	92.3
	복합환승센터 구축	개소	-	3	5	5	7
	UAM 터미널 구축	개소	-	1	2	3	4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	1.6	4.8	7.0	10.0	15.0
물류	컨테이너물동량	만 TEU	375	438	500	585	684
	공항물동량	만톤	378	480	582	791	1,000
	화물공영차고지 확충	면	774	1,253	2,823	3,512	4,425
	화물차 통행제한 지역 지정	구간	-	1	2	3	3
방재 안전	화재발생 건수	건/1 만명	5.2	5.1	5.0	4.9	4.8
	보행자 사망자	명/10 만명	2.34	1.32	0.88	0.64	0.39
	소방관 1명당 주민수	명	1,060	795	689	577	477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	%	69.1	72.4	75.4	80.4	85.4
	ICT 기반의 재난정보 연계	건	16	27	38	49	60
계획지표		단위	2018년	2030년		2033년	
대기질	온실가스 감축율	%	-	41.3		46.8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천톤 CO ₂ eq	18,093	10,621		9,618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33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및 감축율을 제시하였음.

출처: 인천광역시(2024). 단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복지환경지표

- 복지환경지표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설정
- 의료보건시설 지표는 주민 건강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
-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 부분의 현황 및 추이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정보 파악을 위한 관리지표로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교육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및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공교육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지표 제시
- 사회복지지표는 사회적약자 및 보편적 복지 실천을 위한 지표로 설정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의 지표로 활용

[표 2-2-19] 복지환경 계획지표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의료	보건기관 이용률	%	25	27	28	30	32
	지역친화도(RI)	%	75.0	80.0	85.0	90.0	95.0
	치매안심센터 구축	개소	15	20	24	28	32
	10만 명당 의료기관수	개소	115.7	126.8	139.1	152.5	167.2
	1 천명당 병상수	개소	11.8	13.1	14.5	16.1	17.9
교육	평생교육기관	개소	1,194	1,494	1,694	1,994	2,194
	평생학습도시 조성	개소	6	7	8	9	10
	평생학습 참여율	%	34	37	40	45	50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1.0	19.0	18.0	17.0	15.0
사회복지	돌봄시스템	개소	771	1,156	1,272	1,464	1,700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건	100,000	160,150	220,300	320,550	473,452
	여성친화도시 지정	개소	2	4	6	8	10
	노인 일자리 규모	개	27,906	35,597	45,906	52,760	63,597
	취업 장애인 수	명	150	450	480	510	540
	결혼이민자 일자리 수	개	105	400	434	468	500

■ 여가환경지표

- 여가환경지표는 크게 관광, 문화체육, 공원녹지로 구분하여 설정
- 관광지표는 관광산업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계획지표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및 도서 관광객 증가를 통해 GRDP내 관광산업비중을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역사·문화·섬·해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실천전략이 필요함
- 문화체육지표는 기본권·생활권·일상화의 관심도 및 문화권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권 내의 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함
- 공원녹지의 경우 인구계획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적용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상주인구1인당 면적, 부지면적별 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시민의 여가, 휴식 등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충 및 생활권내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함

[표 2-2-20] 여가환경 계획지표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관광	GRDP 내 관광산업비중	%	1.0	2.0	3.0	3.5	4.0
	외국인 관광객	천명	1,400	2,495	4,446	7,924	14,121
	도서 관광객	천명	7,096	9,622	13,048	17,693	25,340
	관광사업체수	개	1,044	2,142	4,395	9,018	18,504
	マイ스행사 유치 및 개최	건	132	411	1,280	3,988	12,421
문화 체육	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	개	43.6	48.8	54.0	59.2	64.4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	85.3	86.5	87.7	88.8	90
	문화환경 만족도	점/ 5 점만점	3.27	3.48	3.69	3.90	4.11
	국민체육센터 확충	개소	9	10	11	12	13
공원 녹지	1 인당 공원조성 면적	m ² /인	12.17	13.16	14.22	15.17	15.62
	도시공원 조성률	%	52.14	79.07	80.75	82.15	85.29
	1 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m ² /인	9.89	12.21	14.53	16.85	19.17
	생태하천 복원	개소	7	8	10	12	14
		km	29.9	36.3	42.7	49.2	55.6

다. 글로벌지표

- 글로벌 지표는 유엔 인간정주위원회(HABITAT)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글로벌도시경쟁력보고서(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GUCR)」 자료를 활용함
 - 지속가능경쟁력 세부지표와 경제 경쟁력 세부 지표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지표를 도출하였음
- 글로벌 지표는 생활환경(사회 포용성) / 하드비즈니스 환경 / 소프트 비즈니스환경 / 글로벌 연결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생활환경(사회 포용성)은 역사·문화, 환경오염 등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메니티 요인을 고려한 지표이며,
- 하드 비즈니스 환경은 도시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의미하며 도시교통, 전력 등
- 소프트 비즈니스 환경은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는 영향 요소로 도시 안전, 교육 측면의 지표
- 글로벌 연결성은 글로벌과 인천을 연결하고 도시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공·항만 관련 지표, R&D 관련 지표를 반영

[표 2-2-21] 글로벌 관련 계획지표

계획지표			단위	2020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생활환경 (사회 포용성)	역사 및 문화	문화기반 시설수	개	120	136	139	141	142
		지정등록 문화재		268	291	296	300	302
	환경 오염도	SO2 오염도	ppm	0.004	0.002	0.001	0.001	0.001
		CO2 오염도	ppm	0.5	0.5	0.5	0.5	0.5
		CO2 배출량	tonCO2eq	18,876,707	16,108,180	15,030,187	14,333,573	13,817,915
	문화 시설	도서관수	개	55	62	63	64	65
		도서관 총연면적	천㎡	131	147	150	152	153
	생태적 다양성 (녹지율)		%	55.51	57.97	58.38	58.67	58.90
하드 비즈니스 환경	교통 편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4	2	2	1	1
		교통문화지수	점	82.95	89.03	90.01	90.72	91.28
	전원공급 (판매전력량)		MWh	23,638,583	22,123,535	22,455,357	22,696,177	22,885,315
	정보 편의성	LTE 품질	Mbps	174.35	194.48	199.40	202.81	205.41
		광역지자체 내 순위	순위	6	3	2	2	1